

강론

외딴곳으로 나가시어

복음은 예수님의 바쁘신 하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신 다음, 시몬과 안드레아의 집으로 가시어 시몬의 장모를 고쳐 주십니다. 그리고는 늦은 밤까지 병든 이들을 고쳐 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십니다. 하루 종일 남의 사정을 헤아리고 그들의 아픔에 함께하시는 모습입니다.

주님의 이런 자애로운 모습은 당신 복음 선포의 밑바탕이 됩니다. 우리도 이처럼 이웃들의 아픔에 함께함으로써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은 자유인이지만, 되도록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약한 이들을 얻으려고 약한 이들에게는 약한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과 마음은 이처럼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적인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은 우리가 아버지 하느님과 일치하고, 그럼으로써 그분 사랑의 힘을 간직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바빠 움직이신 다음 날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외딴곳으로 가시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이렇게 핑계를 대죠. “먹고 살기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고...” 그런 우리에게 복음은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전해줍니다. “다음 날 새벽 아직 캄캄할 때 일어나 외딴곳으로 나가시어 기도하셨다.” 시간이 남아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벽 시간을 쪼개어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 선포의 출발점은 가족과 형제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할 줄 아는 것이며, 그런 삶은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시간을 쪼개어 외딴곳에 머물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백남국 요한 신부 | 대산본당 주임

주일 진례

제1독서 욕 7,1-4.6-7

화답송 ◎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고쳐 주신다.

제2독서 1코린 9,16-19.22-23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그리스도 우리의 병고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 짊어지셨네. ◎

복음 마르 1,29-39

영성체송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자애를, 사람들에게 배푸신 그 기적을. 그분은 목마른 이에게 물을 주시고, 굶주린 이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네.

2면 또래사도 양성 연수

3면 221차 남성 꾸르실료

6면 사제의 한마디

추억.하게 하소서 2

복사학교에 온 초등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복사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나요? 제구! 제의 색깔! 복사 안 틀리고 잘 서는 방법!

좋은 복사가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신감 있게 하기! 안 까불기! 말 잘 듣기!

그러면, 우리 친구들 성당에 계신 신부님들이 어떤 때 좋아요? (보기를 줍니다.)

1. 미사를 안 틀리고 잘 하실 때 2. 우리랑 잘 놀아주실 때 3.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실 때 4. 취미 생활을 즐겁게 하실 때

학생들은 대부분 2번이나 3번을 선택했고, 1번을 선택한 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가끔, 어린아이들이 사제를 보고, 어, 예수님이다! 수녀님을 보고, 어, 성모님이다! 할 때가 있습니다. 모르고 하는 말이라 여기겠지만, 그 아이들 눈에는 교리로 배우고 성경 말씀으로 듣고 미사로 전해지는 그리스도보다, 자신들이 직접 느끼고 매달릴 수 있는 사제와 수도자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 성모님의 모습으로 비치게 됩니다. 전례는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겠지만, 사제, 수도자는,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을 추억하게 만드는 일차적 인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느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시고 그분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됩니다.

- 요한 4,11-12 -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들을 (잘) 돌보아라.

- 요한 21,15 -

소식

● 또래사도 양성 연수



이정림 신부의 주례로 미사가 봉헌되고 있다.



연수에 함께한 학생들과 이정림 신부

청소년국(국장 : 이정림 라우렌시오 신부)은 1월 19일부터 21일 까지 산청 성심원에서 또래사도 양성 연수를 실시하였다. 2018년 본당 중·고등부 주일학교 학생회를 이끌어 갈 학생회 임원들을 위한 이번 연수에는 31개 본당 71명의 학생이 참석하였다. 연수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주제로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을 신앙 안에서 함께 고민하고, 나눔과 발표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연수에 함께한 학생들은 임영준 강사(베드로, 사람in사람 대표)의 리더십 강의를 통해 회장

단으로서 학생회를 잘 이끌 수 있는 능력과 자신감을 얻었다. 지구별 모임과 선거를 통해 지구 회장 및 연합 회장을 아래와 같이 선출하였다.

▶ 지구별 회장 및 연합 회장

- 마산지구 : 이효준 베네딕토(칠원본당) ■ 창원지구 : 김재희 안나(용원본당)
- 진주지구 : 김수운 레지나(가좌동본당) ■ 거제지구 : 조아라 마리아(장평본당)
- 지구장(연합) : 김재희 안나(용원본당)

● 221차 남성 꾸르실료

본당 가나다순

본 당	성 명	세례명
가음동	진명진	비오
	서영태	베네딕토
거 창	허재영	마르첼리노
	김영태	요한
경화동	강민재	미카엘
금 산	성인기	베드로
대방동	이승권	요한
덕산동	최상곤	안드레아
망경동	김현천	야고보
명서동	윤희성	요셉
문 산	강재은	가브리엘
반 송	김재숙	알비노
	박해정	임마누엘
	이점도	가브리엘
봉곡동	강두순	그레고리오
	박인선	바오로
	유덕중	다니엘
	류춘우	요한
사 천	김태현	안토니오



제221차 남성 꾸르실료가 1월 25일부터 28일까지 마산가톨릭교육관에서 실시되어 총 34명의 신자가 수료하였다.

사파동	이진호	티모테오
	공성국	안드레아
삼 계	송순호	테오필로
용 원	박윤수	마티아
	이승우	다니엘
중 동	이재환	베드로
	김종국	안토니오
중앙동	김순구석	베드로

중앙동	강병채	다니엘
진 영	박계현	프란치스코
칠 원	김종원	가브리엘
하 청	이윤재	광현
		아우구스티노
함 안	장경익	토마스
합 천	박종길	하상 바오로
호 계	이근직	즈카르야

● 제144차 한국티스타 교사양성 워크숍



제144차 한국티스타 교사양성 워크숍이 1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교구청 4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워크숍에는 17명의 교육생과 재교육을 위한 6명의 교사가 참석하였다. 교육은 인격과 성심리 발달, 몸의 신학, 생식 생리원리와 생식력 자각, 중·고등학교 및 성인 프로그램, 개별 면담 등 성인의 책임감이라는 맥락에서 본 성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워크숍을 통해 몸은 사랑의 언어이며, 사랑을 주고받는 통로로서 각자의 헌신을 통한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장소임을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 초임 사무장 연수



연수가 박창균 신부의 강의로 진행되고 있다.



연수에 함께한 사무장들과 박창균 신부

교구 사무장협의회(회장 : 윤수준 마르티노)는 1월 23일부터 24일까지 마산가톨릭교육관에서 2018년 초임 사무장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는 '봉사하는 사무장의 자세'를 주제로 한 박창균 시메온 신부(교구 총대리)의 강의로 진행되었다. 박창균 신부는 강의를 통하여 본당 신자들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업무에 충실할 것을 당부하

였다. 그리고 사무처의 통합 양업 운용 및 업무지침에 따른 사무 처리 교육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기획관리국의 세법과 회계업무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다. 연수에 함께한 사무장들은 업무에 대한 이해와 함께 본당 신자들에게 더욱 열심히 봉사할 것을 다짐하였다.

● 진주복지원 슬기로운 어머니 Pr. 1,000차 기념 주회



1,000차 주회 중



기념식 및 다과회

진주복지원(원장 : 신호열 요셉 신부) 슬기로운 어머니 Pr.은 1월 19일 복지원 회합실에서 1,000차 기념 주회 및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 주회에는 신호열 신부를 비롯하여 신승노 스테파노 부단장(문산본당)이 참석하여 함께 축하하였다. 슬기로운 어머니 Pr.은 1998년에 설립되었으며, 문산

본당 순결하신 어머니 Cu.소속이다. 슬기로운 어머니 Pr. 단원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앙공동체를 실현 할 수 있도록 지지해준 문산본당 Cu.단장과 단원들, 그리고 주님의 은총과 성모님의 도우심으로 1,000차를 맞이하게 되었다며 감사의 말을 전하였다.

새해에 평화를 빕니다.

1월 1일 미사를 드리고 우리 지역 새터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 처음으로 ‘통일기원 새터민 합동 망향제’를 한다 하여 다녀왔다. 이 행사는 마을 이장이 제안하고 부녀회에서 떡국 등 음식을 장만하였다고 한다. 우리 새터민들은 북쪽식 ‘두부밥’을 준비해 맛을 보여 주었는데 모양은 유부초밥과 비슷하나 양념이 독특하면서 하나만 먹어도 배가 부를 정도였다. 제문을 읽은 새터민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또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 가족과 만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여 참석한 사람들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올해 프란치스코 교종의 평화의 날 담화문은 “이민자와 난민 : 평화를 찾아 나선 사람들”이라는 제목인데 간단히 요약하면 “그들은 평화를 찾기 위해 기꺼이 길고 위험한 여행에 목숨을 걸고, 고난과 역경을 견디며, 그들의 목적에서 멀어지게 하는 장애물을 만납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이 겪는 고통에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다시 안전한 집에서 평화롭게 살기 위해 많은 것이 우선 해결돼야 합니다. 타인을 환대하는

것은 구체적인 헌신, 도움과 친선의 네트워크, 신중함과 공감, 그리고 언제나 부족한 자원은 말할 것도 없고, 현존하는 많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새롭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를 요구합니다.” 또한 교종께서는 올 새해 바티칸 주재 외교 사절단과의 면담 자리에서 “전 세계를 위한 평화로운 미래를 확보하면서 현재의 분쟁들을 극복할 새 길을 찾기 위해 한반도에서의 대화를 지향하는 모든 노력을 지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셨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한반도에 곧 핵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긴장감(정전 협정 체제 안에 있는 우리는 늘 군사적 위기감에 놓여있어)에 불안해했지만 평창 올림픽을 눈앞에 둔 지금은 금방이라도 통일이 될 듯한 화해의 분위기로 전환되고 있다. 남북 단일팀 구성, 한반도기로 공동 입장, 경의선 육로를 이용한 이동 등 지금 이대로의 분위기라면 통일이 숨처럼 가볍게 올 수도 있을 것 같은 착각(?) 내지는 희망이 생기는 것이 사실이다. 모처럼 한반도에 불어온 훈풍이 세계 곳곳 평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린다.

※ 이번 주부터 가톨릭 칼럼은 김현주 올리아나님과 손진욱 요셉님의 글이 격주로 기고됩니다.



사랑의 종소리

삶의 향기

황원명 하상 바오로·사천본당

한 겨울 송곳 추위 한창이라지만
넋 바닥 군데군데 고인 물가엔
청둥오리 떼지어 난리를 칩니다.

먼 옛날, 할아버지 밤늦은 기침소리에도,
오로지 내 탓이라는 할머니의 묵주기도에도
자비하신 당신께선 늘 함께 울고 웃으셨습니다.

당신 곁을 떠나가서 무지개를 쫓는 많은 이들...
돌고 돌아오는 길이 너무나도 힘이 들고
그들 영혼 흐려지고 몸은 말 듣지 않습니다.

언제나 기다려주시는 당신, 아직 내려보시고
하얀 먼지 둘러싼 성경책 눈앞에 선하니
서러움과 고통들이 눈물 되어 흘러내립니다.

땡그렁~ 땡그렁~
더 멀리, 더 낮은 곳으로
희미한 새벽녘에 어린 영혼 부르시던
성당의 종소리가 마냥 그립습니다.



보내실 주소(미디어국) : 1면 참조, media@cathms.or.kr/ A4, 10P, 17줄 내외, 원고지 4장 이내 분량(※ 주의사항 : 분량 초과 시 게재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채택된 분께는 기도문 액자와 천연비누를 소속 본당으로 보내드립니다.

“평양 그 사람들”



백남해 요한 보스코 신부
교구 사회복지국장

평양 고려 호텔 만장(스카이라운지) 식탁 사이를 재빠르게 오가던 볼 발간 ‘순희’ 처자는 이제 시집갔을 테지요. 대동강 양각도 호텔 ‘외국인 매대’(면세점?)에서 이마에 땀을 흘리며 정성껏 선물을 포장해 주고, 우리가 내민 ‘배 단물’(사이다)을 끝내 마다하던 ‘미옥’ 선생은 이제 중년 부인이 되었겠습니다. 묘향산 향산 호텔에서, 멀리서 온 귀한 손님이라고 차 한 잔 더 대접하려던 ‘금옥’ 안내원은 동생 ‘은옥’ 씨와 함께 건강하십니까? 언니가 ‘금옥’이면 동생은 ‘은옥’이, 언니가 ‘금실’이면 동생은 ‘은실’이... 또 딸이 태어나면 어찌하나 물었더니, ‘동옥’이 ‘동실’이라 하면 된다던 ‘금옥’ 안내원. 우리네 어머니 이름처럼 정겹고 단단한 이름이 어울리는 그 북녘 땅 사람들이 다시 보고 싶습니다. 저는 2000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평양 장충성당에 지어 놓은 ‘콩 우유’(두유) 공장이 잘 돌아가는지, 생산한 ‘콩 우유’는 아이들에게 잘 나누어 주는지 돌아보기 위하여 매년 방문하였습시다. 이후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아직 까지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평양 ‘콩 우유’ 공장도 방치되었고 아이들에게 갈 ‘콩 우유’도 없습니다.

평양 장충성당은 북한의 유일한 성당입니다. 성당이지만 본당 신부님이 계시지 않으니 공소라 할 만합니다. 북한 당국의 허락 하에 지어졌고, 당국의 허가를 받은 신자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장충성당에 마지막 방문하여 미사 봉헌하였을 때 본당(공소) 회장님은 북한이 공산화되기 전 유아 세례 받은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대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공소 회장님께서 ‘대세’ 주시고 신부님들이 부활절에 방문하시어 ‘보례’하시던 옛날 우리 교회 초기 때처럼 하고 있었습니다. 사제는 부족하고 신자들의 하느님께 대한 열망은 커져가던 우리 한국천주교회 초기 모습을 보게 되어서 눈물겨웠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저들이 정말 천주교 신자냐!”라고 묻고 싶으실 것입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었습니까? 저 동토의 땅에서도 하느님을 찬미하는 성가가 울려 퍼지고, 눈물을 삼키며 드리는 심장 속 기도를 우리가 어찌 쉽게 부정할 수 있습니까?

글을 쓰는 지금은 1월 말입니다. 평창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북한 응원단장 ‘현송월’이 남한을 방문하였다는 뉴스가 하루 종일 흘러나옵니다. 인류의 평화를 염원하는 올림픽 정신이 오랜만에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남과 북이 이번 동계 올림픽을 통하여 조금씩 더 문을 열고 다가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국 간의 대화도 있어야겠지만, 민간차원의 만남과 교류도 더 많아져야 합니다. 그곳에 천주교가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점이 많더라도 하느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언젠가는 우리 신부님들이 장충성당 주임 신부도 하시고, 북한 신자들이 ‘복자 윤봉문 요셉’ 성지에 순례도 오시고...



우리의 구원은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통일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완성되기까지는 너무나 먼 길입니다. 인류의 평화와 남북의 통일을 위하여 더욱 기도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2018년 축성(봉헌) 생활의 날 담화문

친애하는 평신도 형제자매 여러분, 존경하는 성직자 여러분, 경애하는 주교 여러분,

2월 2일 제22차 축성 생활의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신자들이 주님 봉헌 축일을 맞이하여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하여 일생을 하느님께 봉헌한 축성 생활 회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날 많은 축성 생활회에서 종신서원을 하는데, 축하를 드립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축성 생활에 대한 문헌 ‘축성 생활’(봉헌 생활)이 1996년에 발표되었고, 1997년 2월 2일 첫 번째 축성 생활의 날을 지냈습니다. 교회 안에는 주교직과 사제직에 딸린 고유한 직무가 있고, 평신도들이 담당하는 특별한 활동이 있듯이, 교회와 세상을 성화시키는 성령의 은사를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많은 축성 생활 회원들이 있습니다.

축성 생활 안에는 많은 남녀 수도회가 있고, 재속회가 있고, 사도 생활단이 있고, 서원한 동정녀들과 은수자들도 있습니다. 활동의 모습으로 보자면 공동체적 생활에 더욱 힘쓰는 수도승회가 있고, 관상에 전념하는 수도회들, 사도직 활동과 선교 활동에 종사하는 축성 생활회들도 있습니다. 만일 교회 안에 축성 생활이 없다면 교회의 그 영적 은사의 풍요로움을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축성생활회가 그만큼 많다는 것은 교회를 이끄시는 성령의 활동을 그만큼 다양하게 드러나게 보여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름(루카복음 18,28 참조)은 그분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귀중한 계획입니다. … 정결, 청빈, 순명으로 요약되는 예수님의 생활 방식은 이 땅에서 복음을 가장 철저하게 실천하는 길로 드러납니다.”(축성 생활 18항)
“축성 생활의 첫째 임무는 부름 받은 사람들의 연약한 인간성 안에 이루신 하느님의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축성 생활 20항)

하느님의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보여주는 일,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보여주는 일, 이것이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이지만 이 자리에 불림을 받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름이 현실의 세계에서 녹록지 않음을 매일 체험하며 살아가면서 여러 도전과 어려움과 관성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 대한 희망 안에서 복음적 권고를 실천할 때 우리와 세상 안에 궁극적인 변화가 찾아오리라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신앙의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여정이기도 합니다.

“수도자들은 참 행복의 정신이 아니고서는 세상을 변혁시킬 수도 없고 하느님께 봉헌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자기 신분으로 빛나는 뛰어난 증거를 보여 주는 것이다.”(교회 헌장 31항)

사랑하는 평신도, 성직자, 주교님!

우리 축성 생활 회원들이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신 참된 행복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가난한 이들, 어려움과 절망에 빠진 이들, 고통 받는 이들과 슬퍼하는 이들, 깊은 갈망 중에 있는 이들, 정의와 평화를 실천하는 이들 가운데 있게 하시고, 진실한 연대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안에, 창조 질서가 보존되는 우리의 ‘공동의 집’ 안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머물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활동과 지향들을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올 한 해 동안 한국 교회는 ‘평신도 희년’을 지냅니다. 평신도 스스로 복음의 진리를 찾아 받아들이는 특별한 역사를 지닌 우리 한국 교회는 ‘평신도 협의회’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면서 평신도들에게 주어진 소명을 깊이 성찰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축성 생활과는 또 다른 역할로 교회의 삶을 꽃피우는 평신도들과의 많은 협력을 통해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소명과 복음화의 활동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제4회 한국청년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되는데, 많은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 생각하고 축성 생활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젊은이들과 멀지 않은 자리에 늘 축성 생활 회원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와서 보아라.”(요한 복음 1,39)는 예수님의 초대가 많은 젊은이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2018년 2월 2일
한국남자수도회 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회장 박현동 블라시오 아빠스

※ 담화문은 교구 홈페이지(<http://cathms.kr/>)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교회의 삶에서 보는 초기 일치 공의회들(4~5세기) 8

칼케돈 공의회의를 개최하게 만든 논쟁

433년의 일치 신조에 대해 알렉산드리아 뿐만 아니라 안티오키아에서도 반대가 있었다. 알렉산드리아와 안티오키아에 있던 극단론자들은 433년 일치 신조에 불만이 많았다. 세월이 지나자 에페소 공의회의 주역들이 모두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 버렸다. 그러나 시리아의 키루스 주교 테오도레투스와 콘스탄티노플의 나이 많은 수도자 에우티키우스가 다시 논쟁에 불을 지폈다. 테오도레투스는 ‘혼합 없는 일치’에 대해 만족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한 채, 그리스도 안에 두 본성이 있다는 주장만 계속해서 되풀이했다. 그리고 에우티키우스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이 인성을 흡수해 버렸다고 주장했다. 에우티키우스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 인간과 똑같은 실체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결국 그는 콘스탄티노플의 플라비아누스 총대주교가 소집한 시노드에서 단죄받고 파문당했다. 그러자 에우티키우스는 로마의 레오 교황과 알렉산드리아의 디오스코루스 총대주교에게 상소했다. 에우티키우스의 절친한 친구였던 테오도시우스 2세 황제는 공의회를 소집하면서, 에우티키우스의 지지자들과 로마의 레오 교황만을 초대했다. 레오는 자신을 대신할 사절단에게 『플라비아누스에게 보낸 교의 서간』을 딸려 보냈다. 레오 교황의 교의 서간에는 주님 강생에 관한 자신의 견해가 명백하게 드러나 있었다. “그리스도는 어머니의 인간적 본성과 똑같은 인성을 지닌 참인간의 육신을 지녔다. 그리스도의 두 본성은

완전하게 지켜졌으며, 그리스도의 두 본성은 하나의 위격 안에서 일치되었다.” 라틴어로는 본성 *natura*와 위격 *persona*이라는 단어가 이미 오래전부터 명확하게 구별되어 있었지만, 그리스어로는 이것이 명확하게 구별되어 있지 않았다.

에페소에서 개최된 공의회(449년)에 참석한 이들은 주로 에우티키우스의 지지자들이었다. 그들 가운데는 알렉산드리아의 디오스코루스도 있었는데, 그는 날뛰는 수도자들의 무리를 대동하고 왔다. 그리스어를 할 줄 모르는 교황 사절단은 한 마디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험악하고 소란스러운 공의회의의 한 회기 중에, 콘스탄티노플의 플라비아누스는 총대 주교좌에서 면직을 당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는 두 본성이 있다고 말하는 이들도 모두 면직을 당했다. 회의 중에 발생한 난동으로 인해 플라비아누스는 부상을 당했다. 결국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치안관들이 개입했으나 플라비아누스는 며칠 뒤에 사망했다. 테오도레투스는 이러한 사실을 로마에 호소했고, 레오는 크게 격노하며 이 공의회를 ‘에페소 강도 회의’라고 표현했다.

새로운 황제 마르키아누스는 종교 정책에 있어서 변화를 시도했고 레오 교황에게 공의회에 참석하여 사회를 맡아 달라고 요청했다. 레오는 사절단을 특사로 보냈고 칼케돈에서 공의회가 개최되었다(451년). 칼케돈 공의회는 처음으로 로마의 주교가 사회를 맡은 일치 공의회였다.

그리운 그 시절



홍예성 바울라 • 수필가

10년간 구독하는 가톨릭 잡지를 우편으로 받았다. 늘 마음속으로만 그리던 ‘첫사랑’ 공연 안내를 먼저 확인했다. 서울 딸네에서 손주를 돌보다 주말이면 춘천 집으로 가는 친구 때문이었다. 쉬는 교우인 그 친구와 공연을 함께 보며 주님의 기다림을 알릴 기회로 삼고 싶었다. 여고 동창 네 친구들의 카톡 방에 뮤지컬 ‘첫사랑’ 공연 포스터를 올렸다. 춘천, 서울, 부산 친구들이 대 환영이라는 답신을 보냈다. 공연 관람 후 춘천 친구네로 여행하자는 계획도 더해졌다. 졸업 후 44년 만에 서울에서 만나 설렘을 가득 안고 공연장을 찾았다.

좌석은 맨 끝 줄이었지만 앉아 보니 무대가 바로 앞인 것처럼 평온했다. 뮤지컬이라면 멋진 드레스와 현란한 의상들만 상상해오다 성악가들이 소박한 평상복을 입고 등장해 오페라 아리아를 우리말로 노래하니 가사를 알아들을 수 있어 좋았지만, 번역한 가사가 부드럽게 이어지지 않는다는 문화 사대주의에 젖은 허황된 생각도 들었다.

10분 휴식 후 2부에서는 출연진 소개와 대표의 인사말이 있었다. 서울 하늘 아래에서 마주한 대표는 명성과 달리 순박한 모습으로 더욱 친근감이 느껴졌다. 당신의 어머니께서 주인공인 동우의 아내처럼 노래를 자주 부르며 고달픔을 달래셨다는 이야기를 울먹이느라 다 잊지 못하였다. ‘아!

순수함은 모든 것을 감싸고 모든 것 위에 빛나는구나!’

평범한 무대와 소박한 의상에 실망을 하였던 나의 교만은 대표의 눈물에서, 순수함의 참 빛에서 와르르 부서지며 창작자의 열정을 담은 출연진의 대사가 비로소 가슴에 가득 담겼다. 심혈을 기울여 소리의 울림과 잔향을 고려해 특별 제작한 반사판과 음향 시스템을 갖춘 홀이라는 잡지의 안내 글을 떠올리니 노래 가사가 평안하게 와닿았다. 잡지로, 공연으로, 아카데미로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의 순수함을 전하려는 그의 사랑이 공연을 통하여 파스하게 전해졌다.

마지막 배경 화면은 ‘첫사랑이 그리운 건 그녀 때문이 아니다. 돌이킬 수 없는 그 시간이 안타까워서이다. 내가 온전히 순수하지 못했던 그 시절이 그리운 것이다.’라는 문구로 채워졌다. 순수한 미소, 파스한 말씨, 사람을 대하는 정성만을 간직하고픈 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예매한 춘천행 열차 시간이 빠듯하여 우리는 공연장을 나와 지하철역으로 숨 가쁘게 달음질쳤다. 열차를 두 번 바꿔 타고 아슬아슬하게 춘천행 itx 청춘열차에 올랐다. 기차에 마주 앉은 우리 넷은 돌아갈 수 없는 여고시절로 되돌아간 듯 까르르 웃음을 날리며 청춘열차의 승객이 되었다.

기억할 사제

2. 6.(화) : 故 박두환 신부 23주기
2. 7.(수) : 故 김민수 신부 5주기

故 김민수 유스티노 신부 5주기 기일 미사

일 시 : 2. 7.(수) 11:00
장 소 : 고성 이화공원묘원 성직자묘역
문 의 : 양덕동성당 사무실
055)292-6561
※ 미사 후 점심 준비를 위해 사전 연락 바랍니다.

향심기도 피정(하느님과의 친밀) 3박 4일

일 시 : 2. 20.(화) 15:00~23.(금) 15:00
장 소 : 마산가톨릭교육관
대 상 : 향심기도 피정 경험이 있으신 분
참배 : 24만 원
준비물 : 수건 및 세면도구, 개인컵
문 의 : 교육관 사무실 055)221-1891

교구 가톨릭상담심리학회 수강생 모집

내 용 : 심리상담사 3급과 심리상담사
2급 자격과정
장소 및 개강일 : 3급(15주), 2급(14주)

	가좌동(진주)	옥포(거제)	마음의집(창원)
3급	2. 26.(월)	2. 26.(월)	2. 26.(월)
2급	3. 4.(주일)	3. 5.(월)	3. 8.(목)

수강료 : 3급 - 20만 원, 2급 - 30만 원
KEB하나 160-890028-51604,
(재)천주교마산교구유지재단
접수 및 문의 : 010-4414-0478
stella0478@hanmail.net
신청서 : cafe.daum.net/mscpa

명례 복음화 학교 개강

일 시 : 3. 5.(월) 미사 - 10:30
문 의 : 성지 사무실 055)391-1205
담당 사제 010-3166-0773

◆ 본당 사목 방문 ◆

2. 6.(화) 산호동, 석전동
2. 8.(목) 회원동, 상남동

◆ 지구장 본당 방문 ◆

2. 6.(화) 양덕동, 구암동
2. 9.(금) 삼계, 호계

교 구

■ 주보편집위원회 회의

일 시 : 2. 7.(수) 12:00/ 장 소 : 교구청
문 의 : 미디어국 055)249-7072~4

■ 예비신학교 지원반 모임

일 시 : 2. 4.(주일) 10:30/ 장 소 : 교구청
문 의 : 성소국 055)249-7061

■ 신입·복학 예정 신학생 피정

일 시 : 2. 10.(토)~11.(주일) 1박 2일
장 소 : 성혈 영성의 집
문 의 : 성소국 055)249-7061

■ 청년 간부 및 단체장 연수(1박 2일)

일 시 : 2. 10.(토) 15:30~11.(주일) 15:30
장 소 : 마산가톨릭교육관
문 의 : 청년사목부 055)249-7065

■ 청소년분과장 및 주일학교 대표교사 연수

일 시 : 2. 11.(주일) 09:30/ 장 소 : 교구청
문 의 : 청소년국 055)249-7051~3

기관·단체

■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총회

일 시 : 2. 7.(수) 19:00/ 장 소 : 교구청
문 의 : 정의평화위원회 055)261-8201

■ 우리나라의 억울한 죽음을 기억하는 미사

알 린 : 2월까지는 현재와 동일한 금요일

19:30 미사 봉헌합니다.

설날(2. 16.) 미사는 쉽니다.

3월부터 목요일 19:30으로

변경하여 미사를 봉헌합니다.

장 소 : 교구청 지하 성당

문 의 : 정의평화위원회 055)261-8201

■ 농어촌 선교후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일 시 : 2. 7.(수) 10:00

장 소 : 장승포성당

문 의 : 가톨릭 농민회 055)582-7010~2

■ 제41차 가톨릭 농민회 정기총회
제21차 우리농 정기총회

일 시 : 2. 19.(월) 10:00/ 장 소 : 함안성당
문 의 : 가톨릭 농민회 055)582-7010~2

■ 교구 레지아 종합보고

일 시 : 2. 11.(주일) 교구청 집결 10:00
장 소 : 광주 Se.
문 의 : 레지아 055)249-7115

■ 2018년도 신앙대학 심화과정 개강

일 시 : 3월~11월, 매월 둘째 주(토)
13:00~17:00

장 소 : 교구청 1층 강당

대 상 : 교구 신앙대학 졸업자

과 목 : 교부학(최원오 :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교회론(전광진 신부 : 들꽃마을 만들레
공동체 및 노인복지센터 원장)

참배 : 12만 원(교재비 포함)/ 신협 131-019-
174079 (재)마산교구 신앙대학

신 청 : 2. 23.(금)까지 별도 신청양식 없이
신청자 이름과 본당명을 함께 기
재 하여 참가비 입금

문 의 : 동문회장 010-4581-5420

■ 187차 ME 주말 안내 2박 3일

일 시 : 2. 23.(금) 19:00~25.(주일) 17:00
장 소 : 마산가톨릭교육관

문 의 : 김주호(요아킴)·조정선(안나) 부부
010-7744-1551, 010-2736-3496

 가톨릭신문 투어

가톨릭신문사 성지순례

3.11(주일) 성모님 발현지
12박 13일, 375만원

4.11(수) 안명옥 주교와
함께하는 동부유럽
11박 12일, 448만원

문의 02)2281-9070 www.cttour.org



백 합 식 품

샐트르성바오로수녀회대구관구

옛날! 어머니의 손맛을 느낄 수 있도록

100% 국산콩으로 만드는 우리의 장맛

수녀원 메주, 된장, 간장, 고추장, 청국장, 대추, 대추즙

대구 053)257-1771, 서울 02)2202-8392

공장(자인) 053)857-2037, www.spcfood.co.kr

 신세계피부비뇨기과

SHINSEGAE UROLOGY & SKIN CLINIC

피부질환/ 비뇨기질환 · 수술/ 전립선암 검진

원장 김인구 베네딕토

055)757-9888~9

진주시 동진로 172 세원빌딩 3F(자유시장 사거리)



주니어 음악학원

(피아노·바이올린)

유치부/ 초·중·고등부 / 일반부 입시부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스카이벨빌 파크 2층

055)263-9320, 010-2559-3551

원장 최은숙 가타리나



수맥홍(홍)침대

주보 지참 교우 우대
거실 황토소파

평화방송·신문 광고 중

☎ 1588-5335

평과 밥상 · 사람과 세상 · 생태계를 살리는
우리농출산리기운동



우리농 직매장

친환경 농산물 · 생활용품

구매할 수 있는 마산교구

1호 우리농 직매장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회원에게는 할인의 혜택을 드립니다.)

이용시간 : 월~토 10:00~20:00

주 소 : 창원시 성산구 가양로 112

(남양동 개나리 4차 아파트 앞 상가)

전화 : 055)266-7010

- 188차 ME 주말 : 4. 13.(금)~15.(주일)
- 189차 ME 주말 : 6. 8.(금)~10.(주일)

기 타

■ 2018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과정

대 상 : 세례받은 평신도와 수도자
(만 18세 이상, 학력제한 없음)
내 용 : 성서, 교의, 전례 등 26과목
원서접수 : 2. 9.(금)까지(우편신청가능)
문 의 : 02)745-8339
ci.catholic.ac.kr(원서 다운 가능)

■ 서울삼성산성지 2월 2박 3일 치유 대피정

일 시 : 2. 9.(금) 18:00~11.(주일) 15:00
문 의 : 010-8375-4600/ 마산역 김안과 앞

■ 지리산 피아골피정집 피정 안내

1. 예비신자 및 새 신자 영성 피정
일 시 : 2. 10.(토) 15:00~11.(주일) 13:00
대 상 : 예비신자, 신자(영세 3년 미만)
2. 사순절 피정
일 시 : 2. 19.(월)~20.(화)/ 2. 22.(목)~23.(금)
2. 24.~25./ 3. 3.~4./ 3. 10.~11.(토~주일)
대 상 : 누구나
문의 및 접수 : 061)782-5004,
www.piagol-732.net

■ Road Of Load 청년기도모임

일 시 : 2. 11.(매월 둘째 주일) 14:00~17:00
장 소 : 부산 구봉성당
문 의 : 010-6866-5695

■ 제주 4·3 7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 개최

일 시 : 2. 22.(목) 14:00~18:00

장 소 : 명동성당 코스트홀

기조강연 : 강우일 베드로 주교(제주교구 교구장)

제발제 : 4·3의 역사적 진실과 한국 현대사에서의 의미/ 발제자 : 박명림 교수(연세대학교 동아시아 지역협력 및 통합 연구센터장)/ 토론자 : 백장현 교수(가톨릭동북아평화연구소 연구위원, 한신대교수), 박찬식 박사(제주학연구센터 센터장)

제2발제 : 4·3의 철학적·역사적 의미/ 발제자 : 김상봉 교수(전남대학교 철학과)/ 토론자 : 한재호 루카 신부(광주가톨릭대학 성서신학 교수), 박찬식 교수(4·3 범국민위원회 집행위원장) ※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공동주최 :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정의 평화위원회, 제주교구

문 의 : 홍선림 리더아 hlidia@hanmail.net

■ 제주 성 이시돌 자연 피정 - 올레, 미사, 기도, 강의

일 시 : 2. 23.~25./ 3. 2.~4./ 3. 6.~9./ 3. 15.~17./ 3. 20.~23./ 4. 2.~4.

대 상 : 개인, 가족, 본당 단체 등
문 의 : 064)796-9181

■ 제주 연형의집 피정(한국순교복자수도회)

수도회 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역사·평화순례, 올레길·오름 트레킹, 미사(성무일도), 나눔
일 정 : 2. 25.~27./ 3. 3.~5./ 3. 12.~14./ 3. 18.~21.(추자도)/ 4. 2.~5.(추자도)/ 4. 9.~11.
문 의 : 02)773-1463, 064)756-6009

■ 성경 거룩한 독서 피정(2박 3일)

일 시 : 3. 16.~18./ 4. 20.~22./ 5. 18.~20./ 6. 22.~24./ 9. 14.~16./ 10. 19.~21./

11. 16.~18./ 12. 14.~16.(금)

14:00~(주일) 14:00

장 소 : 경남 고성 올리베따노 성베네딕도 수도원/ 강의 : 유덕현 야고보 신부
피정비 : 15만 원/ 문 의 : 010-2816-1986

■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학생모집

내 용 : 기계가공, CAD/CAM, 인성교육
기 간 : 3월~12월(2월 예비학교 무료)
해 택 : 교육·기숙사비 무료, 훈련수당 지급, 취업지원(최근5년평균취업률98.4%)
대 상 : 만 15~30세 남자/ 문 의 : 02)828-3600

■ 2018년 교황청 꿈나무 캠프 안내

일 시 : 8. 14.(화)~16.(목) 2박 3일
장 소 : 대전 살레시오 청소년 수련원
대 상 : 초등부 3~6학년, 선착순 300명
한 분당 최대 20명까지 신청 가능
참가비 : 비회원 12만 5천 원, 회원 8만 원
문 의 : 02)2268-7103, pmsk@pmsk.net

■ “일본성지순례”

장 소 : 가고시마, 나가사키 4박 5일
주 관 : 일본 가고시마교구
비 용 : 63만 원/ 문 의 : 010-3005-9028

◆ 가톨릭 농민회 직원 모집 ◆

모집인원 : 1명
대 상 : 회계업무
(법인회계 경력자 우대, 운전가능자)
제 출 : 이력서를 이메일로 발송
kcfm055@hanmail.net
주 소 : 함안군 가야읍 묘사1길 291-1
문 의 : 가톨릭 농민회
055)582~7010~2

성령기도회	일 시	장 소	강 사	주 례	문 의
교 구	2. 5.(월) 19:00	월남동성당	양창우 신부(골롬반 성공로반외방선교회)	양창우 신부(골롬반)	010-5247-9900
창원지구	2. 5.(월) 19:00	반 송 성 당	황인숙(마리아, 서울대교구)	정중규 신부(클라로)	010-9969-5340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 시	장 소	문 의	비 고
한국외방선교수녀회	2. 10.(토) 14:00/ 2. 11.(주일) 10:00, 14:00	부산 본원 및 원하는 장소	010-9319-1690	-
살레시오회	2. 24.(토)~25.(주일)	대전 살레시오 청소년 수련원	010-3894-1332	전국 성소 피정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팔용동)
구용출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라섹수술, 초음파 백내장수술 전문
범안과 의원
EX500엑시머레이저

창원시 용호동 73-62 정우상가 4층 1-1호
055)285-0307 www.wavelasek.co.kr
원장 범진선 다니엘

마 산 예 경 요 양 병 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예 경 병 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도 011-592-8329
* 부모님 같이 모시겠습니다.

◆ 밝은세상의 시작은 안경이야기에서...
안 경 이 야 기 마산 합성점

하드 RGP 콘택트, 누진 다초점 전문점
마산회원구 3·15대로 747-1 (합성동)
마산 시외버스 맞은편
이기웅 로마노, 이태란 요안나
055)295-0888

수학 1:1 개인과외

중·고등학생 개인과외
창원 팔용동
강순덕 마리안나
010-4595-8553

Raphael
라파엘여행사

◆ 3/1 **이스라엘** 9일 (359만원)
◆ 3/5 **이태리, 이스라엘** 12일 (439만원-KE) (399만원-AZ)
◆ 3/5 **스페인, 포르투갈** 10일 (299만원)
◆ 3/7 **이스라엘, 요르단** 10일 (279만원)

문의 (주)라파엘 여행사 ☎ 02)778-8565

즈루빠벨 성전 2



즈루빠벨 성전에 대한 기록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솔로몬 성전보다 소박했던 것으로만 알려져 있다. 기공식 때 옛 성전을 봤던 노인들은 울었다고 성경은 전한다(에즈 3,12). 규모가 작았기 때문이다. 옛 성전 중심은 계약 궤를 보관한 지성소였다. 궤 안에는 십계명을 새긴 석판을 넣었고 주님께서 현존하는 장소로 여겼다. 대사제만 출입할 수 있었던 이유다. 그런데 성전 파괴 때 잃어버린다. 엄청난 쇼크였다. 이후 다시 만들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즈루빠벨 성전이 등장한 것이다. 자연스레 생활의 중심이 되었고 사제들은 한층 강화된 권위를 가졌다. 제2성전은 희랍 시대를 거치며 헤롯 대왕 때까지 500년간 유지된다. 즈루빠벨 뒤를 이어 느헤미야가 유대 총독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성전 주위 성벽을 다시 쌓았고 BC 437년 마무리했다.

기원전 331년 페르시아는 그리스에 굴복한다. 오리엔트 지역이 알렉산드로스 휘하에 놓인 것이다. 하지만 이듬해(BC 323년) 알렉산드로스 왕이 급사하자 이 지역은 셀레우코스 장군 휘하에 들어간다. 그는 보병부대 지휘관이었다. 혼란을 수습한 그는 스스로 임금이 되었고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다. 셀레우코스 왕조의 시작이다. 4번째 임금이 안티오

코스 4세로 에피파네스라 불린 인물이다. 유대인에게 희랍 문화를 보급시킨다는 구실로 종교적 박해를 가했기에 폭군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는 즈루빠벨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세웠고 제단에는 돼지를 죽여 피를 뿌리기도 했다. 에피파네스란 '신이 등장했다.'라는 뜻이다. 자신을 희랍의 신이 나타난 것으로 선포한 것이다. 그러니 왕을 따르는 자체가 신심 깊은 유대인들에겐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정통 유대인들이 반발하자 군대를 보내 핵심 인물들을 처형했고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기도 했다. 성전에서의 종교예절과 할례를 금했고 안식일을 지키면 사형에 처했다. 발견되는 두루마리는 모두 불태워 버렸다. 당연히 저항이 있었다. 기원전 167년 마카베오 가문을 중심으로 독립투쟁이 일어난 것이다. 3년 후인 BC 164년 안티오쿠스 4세는 죽고 독립전쟁은 승리한다. 마카베오는 즈루빠벨 성전 안에 있던 제우스 상을 없애고 새롭게 제단을 쌓았다. 성전 정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유대인들은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성대한 축제를 벌였다.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는 하누카Hanukkah 축제다. 하누카는 봉헌奉獻을 뜻한다. 매년 12월 25일 시작해 8일간 이어진다.

설 명절맞이 “다정한 이웃되기”

우리는 생활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이웃끼리 믿고 따뜻한 정을 나누도록 이어줍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방문하여 사랑의 명절 선물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살고 있는 이웃들에게 우리가 경험한 행복을 전달하겠습니다. 행복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 기간 : 2. 5.(월)까지
- 후원대상 : 마산합포구·회원구 장애인 세대 130가구
- 후원방법 : 현금후원 경남은행 513-07-0183548
농협은행 859-01-147184, 예금주 마산장애인복지관
물품후원 통조림(참치, 고등어, 콩치, 연어, 장조림 등), 조미김
- 문의 : 마산장애인복지관 지역연계지원팀
055)247-5194~6

2018 행복한 출발 신학기 지원모금

3월이 되면 여기저기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엄마 손잡고 다니던 어린이집을 졸업하고 초등학교로. 낯선 마음으로 언니, 누나가 되어보는 중학교로. 이런 당당히 청소년의 걸음을 걷는 고등학교로. 하지만 마냥 행복하기만 한 어린이에게 행여두지 못해 마음 아픈 엄마. 부모님 걱정 덜어드리려고 괜찮다 괜찮다 하는 친구. 모두가 함께 행복해야 할 우리들의 이웃입니다.

나와 이웃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방법
내가 받은 사랑만큼 누군가에게 또 다른 사랑이 되어주세요.
우리들의 후배에게 2018년 행복한 신학기 출발을 지원합니다.

- 기간 : 2. 22.(목)까지
- 구좌금액 : 1구좌 2,180원/ 2구좌 4,360원/ 3구좌 6,540원/
4구좌 8,720원/ 5구좌 10,900원/ 기타 자유 금액
- 지원내역 : 학용품, 교재비, 가방, 교복 등 신학기 물품 지원
- 후원계좌 : 경남은행 580-07-0011610, 성산복지관
※ 입금자명 뒤에 신학기
- 문의 : 창원성산종합사회복지관
055)282-3737



마음의 작은 함께
창원성산종합사회복지관